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이 되려면

임 길 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대학원장·석좌교수, 미시간 주립대 석좌교수

예전에는 대학을 흔히 '상아탑'이라고 불렀다. 상아란 값비싸고, 얻기 힘든 재료로서 고급장식품이나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상아로 만든 물건은 보통 사람들은 만지기 어려웠고, 왕과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학이 보통 사람들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존재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간혹 대학을 '우골탑'이라 부르는 것을 듣는다. 우골이란 문자 그대로 소 뼈다귀라는 뜻인데 이것은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비싼 장식을 만드는 데 쓰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학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지고 대학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대학이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인간세상과 직결되어 있어야 그 존재가 더 빛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나라의 대학들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면 우골탑이라는 냉소적인 표현이 생겨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국립대학교도 세계 대학 순위로 따지면 몇 백 번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연구중심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우리 나라의 대학원은 아직도 지식의 창출에 큰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비록 국부적인 현상이지만 교수를 채용하거나 학생을 선발하거나 설비를 구입할 때 부정·부패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이 그 본래의 사명을 잃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사명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통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고 사용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학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는 물론 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화살을 교수들에게만 돌릴 것인가?

교수가 좋은 교육을 실시하고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연구자료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교수-학생 비율이다. 미국의 경우 가장 좋은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는 교수-학생 비율이 1:8, 프린스턴은 1:6, 예일은 1:7, MIT는 1:5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 TECH)은 교수-학생 비율이 1:3이다. 일본의 경우 그 비율은 1:8 정도가 되고, 영국은 1:9, 프랑스 1:23, 독일은 1:8 등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시간강사를 전부 포함했을 때에도 교수-학생 비율이 보통 1:25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수들은 3과목 심지어 5과목씩 가르치

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교육 지표 중의 하나는 학생1인당 경
상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약 24,000,000원, 영국은 약
10,000,000원, 프랑스는 약 6,800,000원, 독일은 약
16,500,000원, 일본은 약 18,000,000원이다. 이에 비
해 우리 나라는 1997년에 학생 한 명당 3,176,000원 정
도이다.

이러한 지표들이 의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
들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시
행할 수 있는 기초가 허약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
리 대학들에 대한 비판의 책임을 단순히 교수들에게만 돌
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과 비
슷하게 교수 - 학생 비율과 학생1인당 경상비 수준을 맞
출 때에 비로소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을 만들 수 있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약 200
여 개의 대학들을 방문해 보고, 또 몇 개 대학에서 강의
와 연구를 해볼 기회가 있었다. 나는 항상 우리 나라의
교수와 학생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
는 두뇌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왔다. 그런 점
에서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려면, 우선 교수들이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필자는 요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 대학원은 작년 3월에 시작한 단설 대학
원으로 국제경제·국제관계·세계경영·국가개발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학교는 세
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전문대학원인 하버드의 케네디 행
정대학원, 프린스턴의 외교정책대학원, 노스웨스턴의 경
영대학원 등과 맞먹는 교육을 실천해 보자는 목표를 가
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교수 - 학생 비율을 1:6 정

도로 유지하고, 학생1인당 경비도 선진국의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것의 반 정도로는 맞추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든 학생은 연구실을 배정받으며, 24시간 학교에
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동시에 한국문화와 한국의 정치·경제적 사케
를 교재개발의 중요한 바탕으로 삼고 있다. 처음에는 이
러한 조건이 한국에서는 특이한 상황으로, 선뜻 받아들
여지지 않았으나, 개교 1년을 맞는 이즈음 학계·정부·기
업체·민간단체 등에서 이를 획기적인 전문대학원의 모
형으로 받아들여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프린스턴의 미국인 대학원생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
고, 올해 석사과정에 들어온 사람 중 세 명은 이미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대학원이 유지하려는 교수 - 학생 비율이나 학생
1인당 경비가 외국의 최우수대학에 비해서는 크게 유리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획기적인
것임에 분명하다. 본 국제대학원의 교육모형이 우리 나
라의 다른 대학에도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임길진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 프린스턴대학에
서 박사학위(도시계획학)를 받았다. 노스웨스턴 공과대학 교수, 프린스
턴 외교정책대학 교수를 거쳐 미시간 주립대 국제대학장을 지냈다. 세
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미국 원호처 등에서 자문역을 맡았으며
Journal of Urban Arts and Sciences 학술지 편집장을 지내고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고문으로 활동하
고 있다. 저서로 「미래를 위한 인간적 계획론」 등을 발표하였다.